파라미타, 지역조직 강화 나선다

1월 20일 2017 3대 과제 발표… 1사찰 · 1학교 결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홍, 이하 파라미타)가 올해를 조직 강화를 위한 해로 선포하고, 울산과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지회 및 분회 조직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파라미타는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 회의실에서 제38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 3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파라미타가 꼽은 과제는 △지역조직의 안정적 운영 강화 △사찰학생회 활동 활성화 △국제적 역량 강화로 이중 파라미타는 지역조직 확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가장 먼저 파라미타는 올해를 울산 및 경북지역 활성의 해로 지정하고 지도자 교육과 모임을 정례화를 비롯해 은퇴 지도자 역할 부여 등 지역 조직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을 독려해 신규 분회를 5%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장 지홍 스님은 "파라미타의 경우 지도하는 일선 선생님이 전직을 하는 경우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조직화를 목표로 설정해 지역조직에서 파라미타 활동을 끌고 가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조직 확산에는 사찰의 동참이 필수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1사찰 · 1학교 자매결연 맺기를 추진한다. 사찰학생회 활동과 파라미타 활동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파라미타는 이미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생활기록부에 등재 가능한 청소년단체로 교육부 선정을 받은 바 있다.

첫 지역으로 '울산 · 경남'
신규분회 5% 확대 방침
"교사 전근 시 와해 고려"
은퇴교사 활용안도 모색

또 각 사찰의 청소년 법회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간계획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불교 및 전통문화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꺼리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혼재돼있는 초 · 중 · 고 청소년 회원 명칭을 구분해 단계적 활동도 정립한다.

올해 총 예산은 8억 5620만원으로 예산 중 5억 2615만원이 청소년문화지킴이 운영사업, 파라미타 도전 골든벨, 한일교류활동, 국제캠프 운영 등을 포괄하는 '밝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 배정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1월 20일 제38차 이사회서 성진 스님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파라미타는 이날 올해 지역조직 강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제20회를 맞은 파라미타연합캠프는 1억 9000만원이 배정됐으며, UN기구 WFBY(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와 함께 개최하는 국제청소년캠프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이사로 사무총장이었던 성진 스님이 선임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주경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덕조 스님(불굴사 주지)이 이사로 재선임 됐다. 이와 함께 경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장 서명희 씨도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상임이사 성진 스님은 "문화재청과 결합한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 등 생활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입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다. 이제는 사찰과 파라미타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만 남았다"며 "청소년 층 불자인구 감소에 대응해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통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고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복지 백년대계 원년으로" 빅데이터 구축 등

조계종복지재단, '2017년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 발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복지 100년'을 위한 종무기조 아래, 미래를 내다본 발 빠른 대응책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24일 전법회관 6층 재단프로그램실서 '201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조계종복지재단은 '복지 100년을 향한 미래 전략 기반 구축'을 종무기조로 발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도를 뛰어넘어 사회복지 미래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조계종복지재단은 "불교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구심점 구축에 집중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4개 핵심과제로 △빅데이터 및 운영모델 개발 통한 시설관리 체계 혁신 △(가칭)불교복지중앙센터 건립 기반 마련 △종교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불교사회복지 전략 수립 △전문 인재양성 시스템 정비 등 내세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사진)이 1월 24일 '201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사회복지 빅데이터 구축 마련을 통해 기존 복지사례 수집 ·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설장 임용평가 강화 △시설 운영 평가지표 세분화 및 평가기준 보완 △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지역별 특성 및 운영 사례 수집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 · 아동 · 다문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등 다양한 영역을 보강해 정보 수집력을 강화한다.

또한 시설장 · 교수 · 실무자로 구성된 '복지백년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불교복지중앙센터 건립을 위해 100억 원 모연에 돌입한다. 모연은 일반 · 교계 언론기관과 MOU 체결로 벌인 공동모금 사업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불교복지중앙센터 내 불교복지콘텐츠 강화를 위한 'AR(증강현실) 복지시뮬레이션관'을 운영, 3,000배 철야정진 · 만발공양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재단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복지백년 발전위원회' 기구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출범 준비 중"이라며 "불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를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혁신의 기회라고 생각해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스스로 줄기를 뻗어 숲을 이루는 반얀트리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불교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복지 소식

서울노인福 고령 구직자 취업교육과정

내일행복학교 1분기… 취업연계아카데미, 바리스타, 상담가 등

서울지역 고령 구직자를 위해 여가활동과 취업을 연계한 신규직종교육이 진행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2017년 내일행복학교 1분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령자 적합 신규직종 교육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엔 △바리스타 △실버도슨트(영화 해설가) △동년배상담가 △사서도우미 교육 등 고령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참여는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희망자라면 기관을 방문해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하다.

구체적 일자는 △취업설계아카데미 1기(1/31~2/3) △바리스타 교육(2/7~3/23) △도슨트 1기 교육(2/8~3/6) △동년배상담1기 교육(2/9~28) △사서도우미 교육(2/15~3/3) 등이며, 모든 교재비는 1만원이다.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주저함 없이 도전하길 바란다"며 "교육 후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며 인생의 보람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35-1919

이승희 기자

포교사단, 연수교육 체계화 '시동'

연수교육 교재 개발해 올해부터 도입

조계종 포교사단이 일반포교사 연수교육교재를 개발해 교육 체계화에 나선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최근 "1차 합격자에 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각 지역단에서 2차 연수를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교재편찬위에서 발간한 연수교육 교재를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교사단 연수교육의 대상은 2월 18일 치러지는 제22회 조계종 일반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로 3월 10일 포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포교사단의 연수교육 교재에는 불자로서 가치관을 포함해 종단과 포교사에 대한 이해, 어린이 청소년과 군포교, 교정교화, 사찰문화와 염불봉사 등 7개 영역의 이론과 포교방법을 담고 있다. 교재 편찬을 위해 포교사단은 올해 포교사업비 중 1000만원을 편성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교재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2차 연수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18일 치러지는 제22회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는 총 582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705명보다 123명이 줄어든 것이다.

포교원은 이날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광주, 충청권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최종 합격 품수식은 8월 중 포교사 8재계 수계법회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공무원 불자들, 2월 11일 백양사서 결집

신년법회 및 임원 연수 예고

전국 공무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불법홍포를 서원한다.

전국 불자공무원 신행단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는 2월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장성 백양사에서 '2017년 신년법회 및 임원 연수'를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백양사 교육관에서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법문과 입재법회가 진행되며, 판소리 · 가야금 공연 등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이어 임원단 회의와 탑돌이, 철야기도정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새벽 예불과 108배, 암자순례와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법사로 회향법회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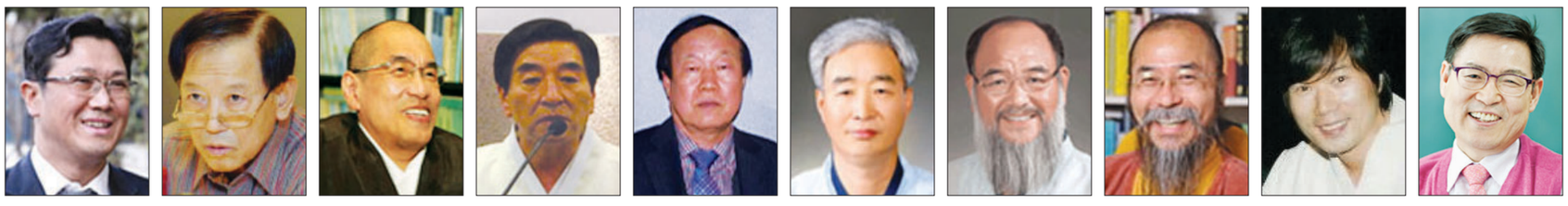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 23일 ~ 6월 22일, 매주 목(木) 18:40 ~ 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2일(목) 17:30 ~ 공개강좌 2월 23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